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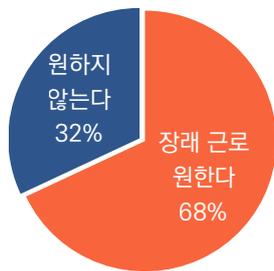
1.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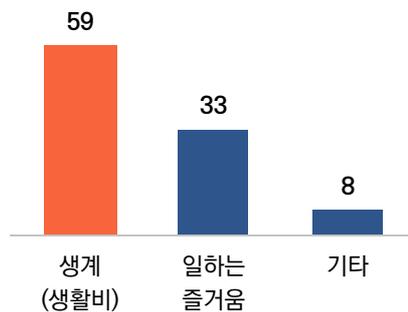
## 대한민국 고령층(55~79세), ‘앞으로 일하고 싶다’ 68%

-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(55~79세)의 향후 근로 의향률은 68%로 나타났다.
- 장래 근로 의향 동기를 살펴보면 생계(생활비)를 위한 동기가 가장 높다.
-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를 환산하면 전체 고령층 중에서 40%가량 된다.  
(장래 근로 희망률 X 근로 동기가 생계인 비율)

[그림] 고령층(55~79세)의 장래 근로 의향 여부



[그림] 장래 근로 희망 동기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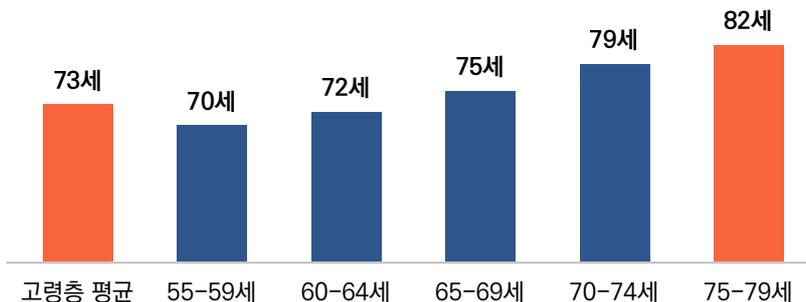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: 통계청, '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', 2021.07.27.

### ● 한국의 노인, 생계 등의 이유로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!

- 고령층(55~79세)을 대상으로 몇 살까지 일을 하기 원하는지 근로 희망 연령을 질문한 결과, '55-59세'는 70세, '60-64세'는 72세, '65-69세'는 75세, '70-74세'는 79세, '75-79세'는 82세로 나타났는데,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세인 점을 감안하면, 한국의 노인은 생계 등의 이유로 인해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.

[그림] 고령층 근로 희망 연령(연령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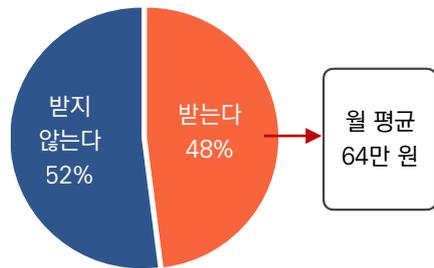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: 통계청, '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', 2021.07.2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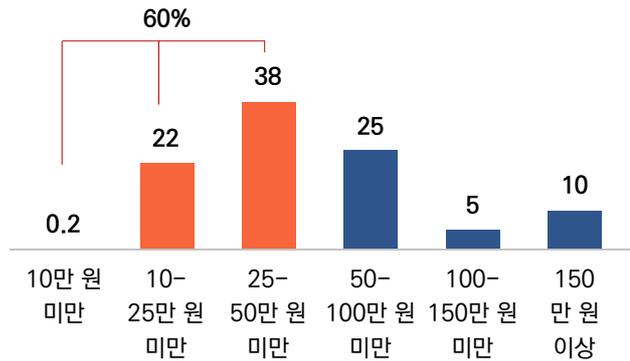
## ● 월 평균 연금 수령액 '64만원'

- 고령층(55-79세)의 지난 1년간 연금 수령 비율은 48%이며, 60-79세층 중에서는 65%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구간별로 보면 '50만 원 미만'인 경우가 60%나 되고, '150만 원 이상' 수령자는 10%에 지나지 않았다.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절반이 넘는 것(52%)을 감안하면 연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이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.
- 이런 상황적 이유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%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.

[그림] 고령층의 지난 1년간 연금 수령 여부



[그림] 연금 구간별 비율 (%)



\*자료 출처: 통계청, '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', 2021.07.27.